

지자체 복지비 부담 3년간 31% 늘어

인건비 증당 등 재정 압박... 박병희 순천대교수 지적

사회복지비 비율 광주 32% 최고·전남 16% 최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사회복지비가 3년간 31.4%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확대되며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순천대 박병희 교수가 19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분권화시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재정 책임성'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지출은 올해 28조4632억원으로, 지난 2008년 21조6568억원에 비해 6조8064억원(31.4%) 늘어나 이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2.9%를 크게 웃돌았다.

전체 세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0.2%로 3년 전인 2008년(17.3%)에 비해 2.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수송 및 교통과 국토 및 지역개발의 비율은 각각 2.3%포인트와 2.1%포인트 떨어졌던 10.7%와 8.3%를 기록했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특별시와 광역시 분청의 경우 23.4%와 28.2%이고 도는 23.2%로 대략 비슷한 수준이며 기초단체 중에서는 평균 25.9%, 군은 16.9%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분청의 경우 광주가 32.1%로 가장 높았고 대전(30.8%), 부산(28.5%), 대구

(28.0%), 인천(27.1%), 서울(23.4%) 등의 순이었다.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평균 45.8%로 높은 편이고 특히 부산 북구는 64.0%로 전체 예산의 3분의 2를 복지비로 쓰는 셈이었다.

전남은 제주를 제외한 시·도 가운데 사회복지비 비율이 16.3%로 가장 낮았다. 시·군별로는 목포(29.3%), 순천(23.2%), 나주(21.2%), 여수(20.5%) 등의 순으로 높았고 신안(11.0%)이 가장 낮았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비 비율이 높아져 자치단체를 할 일을 못하거나 인건비 증당에 힘들이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더구나 사회복지비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이어서 지자체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지자체 사회복지 사업 중 86.8%가 국고보조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은 2002년 30%에서 2008년 43.6%, 2010년에는 47.3%로 상승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총리, 대구육상 성공기원 이어달리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100일 앞둔 19일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린 성공개최 기원행사에서 김총리 국무총리와 김범일 대구시장, 마라토너 이봉주 등이 서포터즈들과 함께 시나 도심을 도는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대상에 '새천년 통일한국포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광주 시민의 날' 기념식

'제46회 시민의 날' 기념식이 20일 오전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강운대 시장, 윤봉근 시의회 의장, 장휘국 교육감, 지역 국회의원, 5개 구청장, 각 계각층의 시민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기념식은 박용석 광주 공동체 원탁회의 공동의장의 '시민현장 낭독', 강운대 시장의 '시민대상 시상'과 '기념사', 윤봉근 시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또 기념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미래의 주역인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관람하고, 광주시향과 시립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과 함께 '시민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환경미화원, 재래시장 상인, 다문화가정, 노동자, 농민 등 시민대표, 모범시민 유공 시장표창 수상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각계각층의 시민대표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이날 기념식에서는 올해 25회째를 맞는 시민대상 수상자인 새천년 통일한국포럼(사회봉사대상), 최준식씨(학술대상), 박운모씨(예술대상), 김창준씨(체육대상), 김성복씨(지역경제진흥대상) 등에 대한 시상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민의 날은 애초 매년 11월1일에 개최됐으나, 지난해부터 조례개정을 통해 5월21일로 변경됐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천일염 브랜드 '빨솔트'

G20 국회의장회의서 대표 특산물 선포

전남개발공사의 천일염 브랜드 '빨솔트'가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 행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선보였다.

19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2011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전 세계 26개국의 의회정상과 관계자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최근 빨솔트 350개를 납품했다.

빨솔트는 이날 국회 내 전통 한옥인 '사랑재'에서 열린 공식 오찬에서 각국의 참가단에게 한국의 대표특산물로 전달됐다.

빨솔트는 청정 갯벌 위에 바닷물을 끌어들이어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키고 갯벌을 다져 만든 결정지(토판염전)에서 우리나라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소금이다.

특히 국내 생산 소금의 1%에 해당하는 고급소금으로 일반 소금에 비해 미네랄 등 각종 성분이 고르게 분포돼 쓴맛이 없고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빨솔트가 국제행사에 첫 선을 보이면 한국의 대표특산물로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면서 "브랜드 가치도 상승해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남 85% - 여 74%

"軍 가산점제 찬성"

일반 국민의 약 80%가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초 한국갤럽에 의뢰해 남성 508명, 여성 515명 등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9.4%가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비율은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하는 비율은 여성(17.1%)이 남성(9.4%)에 비해 높았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보상(63.4%),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22.2%) 등의 이유를 들었고, 반대의 이유로는 여성과 군미필 남성의 공직진출에 대한 차별(30.1%), 가산점보다 다른 대책 필요(27.9%) 등이 있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여군 출신

동원예비군 생긴다

국방부는 19일 현역 복무를 마친 여군에게 무조건 퇴역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전역하는 여군 중 본인이 희망하고 일정 연령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여군 출신 예비역이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행 군인사법과 병역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퇴역을 원치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군 출신 예비역이 예비군 중대장과 비상계획관에도 진출하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반테러 국제 공조 강화해야"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 개막

주요 20개국의 국회의장이 모여 국제적 난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해법을 모색하는 '서울 G20국회의장 회의'가 19일 개막됐다.

이날 오전 8시30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식을 시작으로 이날 일정을 막을 올린 G20 국회의장 회의에는 국회의장 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대리 참석국 12개국 등 총 26개국이 참가했다.

회의는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를 주제로 내걸고 있으며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을 핵심 의제로 이틀간 총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의장국 대표인 박희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인류는 글로벌 자연재해, 빈곤과 테러, 기후변화, 원자력의 안정적 관리 등 매우 심각한하고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므로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세계 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 간 공조전략(제1·2세션) ▲지구촌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전략(제3세션) ▲선진국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제4세션)을 주제로 오전과 오후에 걸쳐 모

두 4개 세션이 진행됐으며 마흐멧 알리 사힌 터키 국회의장 등 16명의 국회의장·부의장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인도의 메이라 쿠마르 하원의장은 "민주주의가 테러의 타깃이 되고 있다"면서 "테러에 관한 종합적 협약이 있다면 국제사회는 통합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여기에 테러자금 문제, 적국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여러 지침이 포괄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알렉산드르 토르킨 상원부의장은 "최근 국제적 테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반테러 국제공조 강화가 유일한 대응방안"이라며 양자 또는 지역별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조 필요성을 제안했다.

G20 국회의장 회의는 둘째 날인 20일 오전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제5, 6세션을 개최한 뒤 폐회식에서 참가국의 합의를 담은 '서울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은 박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정의화·홍재형 국회 부의장, 민주당 김성근·최인기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됐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재산은 100억 넘는데

건보료는 고작 2만원

직장가입자 149명

"부과기준 허점 탕"

100억원 이상의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료를 월 2만여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지만 재산은 100억원(이하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149명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보수월액 100만원 이하인 직장가입자 219만여명이 내

는 건강보험료 평균액은 2만2255원으로,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 보험료 7만4849원의 30%선에 불과하다.

재산이 50억~100억원이면서 전체 직장인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보수월액 300만원 이하)는 2863명, 10억~50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평균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는 4만5586명에 달했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나 임대료 수익 등 재산에서 유래한 소득과 상관없이 보수월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제도의 허점 때문에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쌍촌동 맛집 월화수에서
정갈하고 깔끔한 퓨전 한정식을 맛보세요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격 퓨전 한정식
소중한 자리를 맛과 정성으로 고객님의게 제공합니다.
언제나 최상의 맛과 품질로 친절하게
고객 한분 한분께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변함 없는 서비스와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승정리 역서스 월화수 5·18학생 교육문화회관 5·18기념 문화회관 ↑ 시청
지하철 1호선 34번출구
↓ 시내

월 화 수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37-28
예약전화 062-385-8080~1

유전일식 참치

유전일식이 참치와 함께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20여가지 음식이 준비된 고품격
점심특선 을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족모임, 귀한 손님 접대에는 맛있고 다채로운 고품격
유전일식이 으뜸입니다.

유전일식은 최고의 맛과 품격을 추구합니다

유전일식 점심사
점심특선 17,000원
유전 특정식 25,000원
유전 특참치 35,000원

유전일식 예약전화 062-233-9911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253